



전남도가 조성중인 '남도갯길 6000리' 구간 중 상당수가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와 지방도로 연결되면서 텁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사진은 남도갯길 중 77번 국도를 따라 걷는 완도군 해안길로, 텁방객들이 차량을 피해 도로 옆을 걷고 있다.

/최현기자 choi@kwangju.co.kr

담당공무원도 모르는 '남도갯길'

편의시설도 미비…대부분 국·지방도와 겹쳐 '곡예 걷기' 위험천만

전남도 답사·검토 없이 출속 추진…예산도 전액 삭감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남도갯길 6000리' 조성사업이 걸들고 있다.

울레길 열풍 속에 '걷기 좋은 길'을 조성하겠다며 나섰지만 충분한 사전 검토와 답사 없이 추진되면서 텁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이 많은데다, '세계적 걷기 명소'로 육성한다면 예산조차 지원하지 않아 말만 앞 세운 전형적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는 지난 2009년 영광군 흥농읍에서 광양에 이르는 2500km 구간을 '남도 바닷길 6000리'로 조성, 호남의 정서가 물씬 풍기는 세계적 걷기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남도갯길 상당수가 국도로 연결되고 있어 향토사학자나 전국도 보단체, 지역 생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활용, 충분한 답사와

치밀한 검토를 거쳐 텁방객들을 위한 걷기 전용길을 조성한다는 애초 구상과는 거리가 멀다.

예컨대 남도갯길 중 완도군이 조성한 7개 구간의 도보 텁방길 중 해안길(20km)의 경우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국도 77번 국도를 따라 걸어야 하는 틈에 '위험천만한' 모험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차량통행이 끊어졌다 싶어 좁은 갯길을 따라 걸었다가는 무서운 속도로 회피하거나 차량에 사고 위험도 높다.

거창한 계획과는 달리 2년이 넘도록 흥보나 편의시설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남도갯길이 16개 시·군에 걸쳐 있음에도, '남도갯길 6000리'라는 안내 표지판은 영광과 완도 구간에만 설치돼 있고 그나마 '가을에 콩나듯' 설치해 무턱대고 나섰다는 길을 헤매기 쉽다.

남도갯길 중 영광군이 조성중인

'천일염길'은 변변한 쉼터 하나 없는 턱에 몇 시간 넘게 쓸어지는 헛발을 고스란히 참아내야 하고 20km 구간에 설치된 안내판은 단 한 개뿐이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지역 공무원들조차 갯길 코스를 몰라 주변 풍광이나 역사·문화를 더듬어 걷는 것은 커녕 '길 찾기'에만 몰두해야 할 정도다.

여기에는 전남도의 무관심과 정책 집행력 부족 탓이 크다. 2017년까지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면서도 예산 총괄 부서는 2년 째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우선 순위에서 제쳐

놓았다. 이처럼 전남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특색있는 테마를 설정해 다양한 역사·문화·생태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스토리텔링 작업은 커녕 시·군을 통해 남도갯길 조성을 독려하기도 미숙한 혈연이다.

일각에서는 테마길을 선정하고 조성하는 세부계획부터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기독교명문대학!
진리로 미래를 여는 지성인의 요람!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1. 9. 14.(수) ~ 10. 7.(금)
합격자 전원 입학금 면제 장학혜택
입학 학부 062) 605-1114
문의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우암학원 장학61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나주 영산강길·담양 수목길 걷기대회

청명한 햇살, 코스모스가 손짓하는 강길, 들판길을 따라 함께 걸읍시다.
해마다 가을 걷기대회를 개최해온 광주일보사는 올해 2개의 명품 걷기코스를 선정,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 속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걸으며 건강과 낭만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모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산강길 걷기대회

일시 : 2011년 10월 8일(토) 오전 9시 30분
장소 : 나주시 다시면 죽산보공원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나주시
주관 | 광주일보사

일시 : 2011년 10월 22일(토) 오후 1시
장소 :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광장

문의 | 062-220-0541



광주 3순환도로 전남과 합의

시·도 광역행정협의회 7개 사업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가 광주·전남 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확보, 청사 입주 등 협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 현안이었던 '평동 포사격장의 전남 이전 문제'의 경우 광주시가 6개 월만에 '광역행정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해당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양 시·도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를 열고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양 시·도에서는 7개 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서 ▲영산강의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창출 ▲빛그린 국가산업단

지 조기 시화 ▲동북قم 주변 지역

정비 사업 및 무더길 명품길 조성 ▲광주·전남 순환고속도로 건설 및 산포터레~양촌간 도로 확·포장 ▲광역교통수단 환승체계 도입,盤양~광주 철단지구 버스노선 연장, 광역버

스정보시스템 확대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발 및 광주·전남 방문주간 운영 ▲서남권 원자력의 학원 유치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하지만 광주시가 제안했던 광산구에 위치한 2개의 군 훈련장(평동·동백 훈련장)을 장성과 영광으로 옮기는 안건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양수 장성군수는 "광주 발전을 위해 인근 시·군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유치



강운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22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에서 7개 항으로 이뤄진 '광주·전남 공동발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뒤 흐리 웃고 있다.

경쟁에 나선 서남권 원자력의 학원도 '공동 유치'에만 합의했을 뿐 장소를 어디로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지난 1989년 설립된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는 민선 이후 지금껏 8 차례 열려 93건의 안건을 협의했다.

/김자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국인구 10명 중 1.1명 광주·전남 출신

10년간 0.7%p 감소…통근·통학 시간 전남 21.3분 가장 짧아

전국 인구 중 출생자が 광주·전남 인구 비율이 지난 10년간 0.7%포인트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전국 대비 광주·전남 출신 인구비율은 각각 2.0%와 9.8%였으나, 2010년에는 2.3%와 8.8%로, 전남 인구가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비율도 11.8%에서 11.1%로 줄었다.

2010년 광주로 전입한 인구는 13만7000명, 전출 인구는 13만8000명으로 균형을 이뤘으나 전남은 12만7000명이 들어온 반면 18만9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

났다.

통근·통학에 걸리는 평균 시간은 전남이 21.3분으로 전국에서 가장 짧았으며, 광주는 28.8분으로 7 대 특별·광역시 가운데 울산(27.3 분)에 이어 가장 짧았다. 서울은 41.2분, 전국 평균은 32.9분이었다. 통근·통학수단으로는 전남이 103만명 중 34만8000명이 도보를 이용, 33.7%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근·통학하는 광주시민 85만3000명 중 승용차 이용자는 35만7000명으로 41.9%, 도보는 19만4000명(22.8%), 시내버스 등은 18만7000명(21.9%)이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